보리와 제주 꽃밭

나비를 따라 걸었던 제주 꽃밭의 하루



보리의 제주 꽃밭 산책



보리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꽃밭에 도착했다. 발밑에는 꽃길이 이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스쳤다.



보리는 낯선 꽃냄새를 킁킁 맡았다. 작은 나비가 지나가자 눈빛이 반짝였다.



보리는 나비를 따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갔다. 꽃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보리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가족은 보리 곁에서 천천히 걸었다. 보리는 잠깐 멈춰서고, 다시 가족 쪽을 돌아보았다.



나비가 높이 날자 보리도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꽃바람 속에서 보리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해가 낮아지자 바람도 더 조용해졌다. 보리는 가족 곁에서 편안한 숨을 쉬며 천천히 마음을 놓았다.



석양이 꽃밭을 길게 덮자 보리는 꽃 사이 그늘에 몸을 누였다. 하루 동안 걷느라 지친 보리의 숨이 천천히 고요해졌다.



그날의 꽃바람과 나비는 보리 곁에 조용히 남아 있다. 가족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제주 꽃밭의 저녁빛을 함께 꺼내 본다.



보리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꽃밭에 도착했다. 발밑에는 꽃길이 이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스쳤다.



보리는 낯선 꽃냄새를 킁킁 맡았다. 작은 나비가 지나가자 눈빛이 반짝였다.



보리는 나비를 따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갔다. 꽃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보리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가족은 보리 곁에서 천천히 걸었다. 보리는 잠깐 멈춰서고, 다시 가족 쪽을 돌아보았다.



나비가 높이 날자 보리도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꽃바람 속에서 보리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해가 낮아지자 바람도 더 조용해졌다. 보리는 가족 곁에서 편안한 숨을 쉬며 천천히 마음을 놓았다.



석양이 꽃밭을 길게 덮자 보리는 꽃 사이 그늘에 몸을 누였다. 하루 동안 걷느라 지친 보리의 숨이 천천히 고요해졌다.



그날의 꽃바람과 나비는 보리 곁에 조용히 남아 있다. 가족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제주 꽃밭의 저녁빛을 함께 꺼내 본다.



보리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꽃밭에 도착했다. 발밑에는 꽃길이 이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스쳤다.



보리는 낯선 꽃냄새를 킁킁 맡았다. 작은 나비가 지나가자 눈빛이 반짝였다.



보리는 나비를 따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갔다. 꽃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보리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가족은 보리 곁에서 천천히 걸었다. 보리는 잠깐 멈춰서고, 다시 가족 쪽을 돌아보았다.



나비가 높이 날자 보리도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꽃바람 속에서 보리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해가 낮아지자 바람도 더 조용해졌다. 보리는 가족 곁에서 편안한 숨을 쉬며 천천히 마음을 놓았다.



석양이 꽃밭을 길게 덮자 보리는 꽃 사이 그늘에 몸을 누였다. 하루 동안 걷느라 지친 보리의 숨이 천천히 고요해졌다.



그날의 꽃바람과 나비는 보리 곁에 조용히 남아 있다. 가족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제주 꽃밭의 저녁빛을 함께 꺼내 본다.